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한국적 수용과 ‘닥터 지바고’

노벨문학상, 솔제니친, 반공주의, 재난사회

이행선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한국문학 전공
sh8017@naver.com

양아람

고려대학교 일본문학·문화 박사과정, 일본문학·문화 전공
evanofe@naver.com

- I. 『닥터 지바고』의 저자, 파스테르나크
- II. 정치적 탄압, 노벨문학상 거부와 번역 경쟁
- III. 부분 복권, 영화 개봉과 솔제니친의 노벨상 수상, 라라의 고백
- IV. 1980년대 중후반 파스테르나크의 완전 복권과 추억의 명화
- V. 맺음말

I. 『닥터 지바고』의 저자, 파스테르나크

2016년 미국의 가수 밥 딜런(Bob Dylan)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면서 그의 수상 및 수상식 참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그러면서 과거 노벨문학상을 거부한 작가들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그중 대표적 인물이 195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련 작가 보리스 레오니도비치 파스테르나크(Boris Leonidovich Pasternak, 1890-1960)였다. EBS <고전 영화극장>은 2016년 11월 11일과 18일 영화 <닥터 지바고> 1, 2부를 방영했다. 이 영화를 본 독자는 영화음악 <라라의 테마>를 듣고 추억에 젖기도 했지만 지루하다는 평도 많았다. 매우 오래된 영화인 데다가 3시간이 넘는 영화를 겨우로 방영한 영향이 컸을 것이다. 현재 청목 정선세계문학, 일신서적의 세계명작, 다락원(1989), 범우사 범우비평판 세계문학선(1999), 동서문화동관(2016) 등에서 『닥터 지바고』를 판매하고 있지만 다른 유명 외국문학에 비해서 인기가 없는 편이다. 그동안 대중의 감수성이 바뀌고 소련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닥터 지바고』(1957)는 1958년 한국에 번역 소개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968년 수입된 영화는 1990년대까지 네 번 이상 상영되었으며, TV에 여러 번 방영된 명작영화였다. 그 결과 1997년에는 ‘시청자가 뽑은 다시 보고 싶은 영화 50’에서 9위였고¹⁾ 같은 해 ‘문인이 뽑은 문학적인 영화’ 1위였으며²⁾, 1999년에는 전문가가 뽑은 ‘20세기 걸작’에서 6위, 네티즌이 뽑은 걸작 4위에 선정되었다.³⁾ 이처럼 특정 작품이 일반 독자와 문인을 포함한 영화예술인 등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오랫동안 인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와 한국에 미친 문학·문화적 영향이 궁금하다. 특히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목을 요한다.

소련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1890년 2월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
- 1) 「감동과 추억의 그 영화 ... 새봄 안방은 '시네마 천국」, 《동아일보》, 1997년 2월 22일자, 17면;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로마의 휴일' 1위」, 《동아일보》, 1997년 2월 25일자, 44면.
 - 2) 「문인들이 뽑은 문학적인 영화 1위 「닥터 지바고」, 2위 「향수」 등 "소설보다 더 감동적」, 《동아일보》, 1997년 8월 15일자, 15면.
 - 3) 「독자와 함께 정리하는 20세기 20대 뉴스 7. 세기의 걸작 '모던타임스' '에스터데이' 첫손」, 《한겨레》, 1999년 11월 19일자, 17면.

어머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고, 아버지는 톨스토이(Leo Tolstoy)의 『부활』 삽화를 그린 유명 화가이자 교수였다. 그의 부친은 톨스토이 집안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했고 1910년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파스테르나크의 집안 식구는 누구보다 먼저 장례식을 찾았다.⁴⁾ 이처럼 예술가 집안에서 자란 그는 1908년 모스크바 제국대학 법학부에 입학한 후 1909년 작곡가 스크랴빈(Aleksandr Nikolaevich Skryabin)의 영향을 받아 작곡 공부를 하지만 음감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단념한다. 철학 공부에 매진하던 그는 독일 마르부르크의 신크트학과 코헨(Cohen) 문하에서 철학 연구를 이어가지만 첫사랑의 실패와 함께 그만둔다. 이 무렵부터 문학의 길에 들어선 그는 1913년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문학적 경력은 흔히 세 시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첫 시집인 『구름 속의 쌍둥이』를 발표한 1913년부터 1932년 『제2의 탄생』까지의 시기다. ‘상징주의 시인 블로크의 영향하에서 시 습작을 시작한 그는 1915년 5월 당대 최고의 미래주의 시인 미야코프스키를 만나 사숙하게 된다. 이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시집 『삶은 나의 누이』(1917 저술, 1922 출간)를 통해 그는 일약 유명 시인이 된다. 1931년의 『안전통행증』은 자서전적 에세이다.”⁵⁾

제2기는 1933년부터 애국적인 경향의 시집 『새벽 열차를 타고』(1941)에서 ‘조국전쟁’을 노래하게 될 때까지이다. 이 기간에 그의 작품은 한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 침묵은 스탈린 시대의 숙청이 파스테르나크에게 유·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작품 활동 대신 그는 생계 수단으로 번역에 몰두하여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과 괴테의 『파우스트』 등 많은 작품을 번역했다.

제3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 사망 때까지이다. 1945년 겨울부터 그는 모스크바 근교의 페레텔키노의 별장에서 ‘닥터 지바고’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이즈음 그의 시는 초기 시의 상징성과 난해성을 탈피하고,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한다. 당국의 억압은 전후에도 지속되어 그는 작품 집필 대신 번역에 몰두했다. 전후에 나온 『그루지야 시인집』(1946), 『파우스트』(1953), 『셰익스피어 비극집』(1953) 등은 모

4) 김수영, 『도덕적 갈망자 파스테르나크』(1964), 『김수영 전집 2』(민음사, 2007), 300쪽.

5)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저, 임혜영 역, 『안전 통행증 · 사람들과 상황』(을유문화사, 2015), 145-149쪽.

두 수준 높은 번역 작품으로 정치적 탄압을 피해 번역에 몰두한 수확이다. 보리스는 ‘닥터 지바고’ 1부를 1950년, 2부는 1955년에 완성했으며 소련의 유서 있는 문학잡지 『노비미르(*Novy Mir*)』에 실으려 하지만 어려워지자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 그래서 이 작품은 1957년 11월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어로 최초 번역 출판되었다.”⁶⁾ 파스테르나크는 생전에 이미 마야코프스키(Vladimir Mayakovsky)를 이어 소련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평가받았으나 오늘날 그의 대표작은 노벨상으로 화제가 된 소설 『닥터 지바고』이다. 이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덟 살의 나이에 고아가 된 유리 지바고(영화배역은 오마 샤리프)는 의사가 돼 빈곤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결심한다. 그는 자기를 길러준 은사의 딸 토나(제럴드 채플린)와 결혼해 의사로 명성을 얻는다. 그러던 어느 날 무도장에서 자신의 정조를 빼앗은 어머니의 정부인 코마로프스키(로드 스타이거)에게 충격을 가한 라라(줄리 크리스티)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다.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군의관으로 참전한 그는 우연히 중군간호부로 변신한 라라와 반갑게 해후한다. 1917년 러시아에 혁명정부가 세워져 숙청대상이 된 유리는 우랄산맥의 한적한 오지마을로 숨어든다. 전원생활의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시내 도서관을 찾은 유리는 우연히 그 근처로 이주해온 라라와 다시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코마로프스키가 나타나 라라를 거짓말로 현혹해 데려감으로써 이들의 관계는 끝나고 만다. 그리고 몇 년 뒤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유리는 전차에서 내리는 라라를 보고는 황급히 뒤쫓다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만다.”⁷⁾

이 작품은 1905년 1차 혁명에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1917년 10월 혁명에 이어 지바고가 사망하는 1929년이 시대적 배경이다.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 작품의 핵심 키워드는 혁명과 사랑이다. 파괴와 살육으로 얼룩진 러시아혁명의 시대에 인간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젊은 의사 지바고의 러브 스토리라는 게 이 소설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다. 이처럼 이 작품은 러시아혁명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1958년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련 내에서는 반혁명적 작품이었다. 냉전 질서가 고착화되어가던 한국에서 이 작품이 수용되었을

6) 보리스 파스체르나크 지, 박형규 역, 『열린책들 세계문학 40. 닥터 지바고』(열린책들, 2011), 673-675쪽.

7) 「K-2 ‘닥터 지바고’ 혁명과 사랑, 대자연의 서사시」, 《한겨레》, 1997년 5월 24일자, 21면.

때 반공문학으로 간주되었을 거라는 짐작은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반공소설이 한국에서 40년 넘게 대중적 인기를 확보했다는 게 놀랍다. 소설과 영화가 한국 사회에 미친 문학·문화적 현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작품을 대하는 서방과 소련의 방식이 한국 독자의 지바고 수용에 미치는 영향과 반공주의를 기능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인접국이면 서도 정보가 극히 부족한 소련의 이미지를 조형하는 데 이 작품이 미친 영향을 탐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시대별 수용사를 고찰하기 위한 시대구분은 ‘철의 장막’으로 표상된 소련에서 파스테르나크가 복권되는 과정과 한국 내 흥행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탄압의 강도가 완화되면서 해당 작품과 관련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산출되고 유통되기 때문이다. ‘지바고 사태’에 대한 진실이 사후 수십여 년에 걸쳐 조금씩 공개되는 과정에서 파스테르나크와 소련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영화, 비디오 등 미디어산업의 성장과 국내 수입이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컨대 이 글은 소련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소설, 산문, 영화, 보리스의 연인의 자전적 에세이 등을 통해 외국문학자의 문학·문화적 영향, 그 통시적 수용사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정치적 탄압, 노벨문학상 거부와 번역 경쟁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1956년 6월 소설 ‘닥터 지바고’의 원고를 이탈리아의 펠트리넬리 출판사에 넘겼고, 펠트리넬리는 각종 압력과 장애 속에서 그해 11월 책을 출판하였다.⁸⁾ 파스테르나크의 연인이자 영화 <닥터 지바고>의 ‘라라’의 모델로 알려진 ‘올가 이빈스카야(Olga Ivinskaya)’에 따르면 처음에는 이탈리아어로, 다음은 러시아어 판본이 밀란에 등장했다. 6개월 만에 11권이 나왔고, 2년 동안 23개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체코어, 폴란드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헤브루

8) 마치엔 외 저, 최옥영·한지영 역, 『노벨문학상 100년을 읽는다』(지성사, 2006), 355쪽.

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구자라트어, 아라비아어, 일본어⁹⁾, 중국어, 베트남어)로 간행되었다. 심지어 이 소설은 인도의 또 다른 언어인 오리아어(오리사 주의 언어)로도 나왔다.¹⁰⁾ 출판 후 서양의 각 매체는 이 작품을 인용하며 『전쟁과 평화』처럼 위대한 작품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1958년 10월 23일 노벨문학상 수상작으로 『닥터 지바고』가 선정되면서 작품은 더욱 유명해졌다. 미국에서 이 소설은 12월에 30만 부를 돌파했고 작가는 해당 연도 문단의 인물로 선정되었다.¹¹⁾

한국에서는 1958년 말에 최초로 번역되었다.¹²⁾ 올가의 기억에 한국이 없는 이유는 한국은 1957년 1월 저작권법이 공포되었지만 국제저작권협회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닥터 지바고』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벨문학상 번역 경쟁을 촉발한 작품이다. 이 무렵에만 무려 8개 출판사가 번역에 뛰어들었다.¹³⁾ 모두 영어 중역본인데 그중 여원사, 동아출판사, 문호사 판이 가장 많이 팔렸다. 11월 29일 초판을 간행한 여원사는 이듬해 1월 4판을 냈고 HLKY <소설 낭독>에서 여원사 판으로 낭독을 했다.¹⁴⁾ 동아출판사는 12월 1일 초판을 찍고 5일에 재판을 발행했으며,

9) 1958년 일본의 한 출판사는 『닥터 지바고』를 소설 『전쟁과 평화』에 필적하는 작품으로 소개하는 책 광고를 했다. 『ボリス・パステルナーク, ドクトル・ジバゴ/時事通信社』, 《読売新聞》, 1958년 11월 21일자, 朝刊 3면; 『パステルナーク 著, 原子林二郎 譯, 『ドクトル・ジバゴ』 第1・2部(東京: 時事通信社, 1959). 이 책은 동월 10일 7쇄를 찍었다. 이처럼 일본에서 『닥터 지바고』는 1959년의 베스트셀러가 된다.

10) 올가 이빈스카야 저, 신정옥 역, 『라라의回想; 파스테르나크의戀人下』(科學과人間社, 1978), 353쪽.

11) 『“醫師지바고”等 美國の『ベスト・셀러』』, 《경향신문》, 1958년 11월 14일자, 4면; 『美國分單도 22萬弗 “醫師 지바고” 印稅』, 《동아일보》, 1958년 12월 14일자, 4면. 미국에서는 『의사 지바고』가 많이 팔리면서 덩달아 잘 팔린 책이 존 건서(John Gunther)의 *INSIDE RUSSIA*(소련 내부)이다(『亞·阿聯想』, 《경향신문》, 1959년 1월 22일자, 1면). 이 책은 당시 일본과 한국에도 번역되었다(『ジョン・ガンサー 著, 湯淺義正 譯, 『ソウエトの内幕』, 東京: みすず書房, 1959). 이 책에서는 보리스에 대해 다음과 말한다. “음악, 연극, 발레,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 있는 많은 거물들은 공산당원이 아니다. 구세대의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런 것이다. 최근까지 살아 있던 시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존 포스터 델레스만만큼이나 공산당원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존 건서(John Gunther) 저, 백성환 역, 『소련의 내막(上)』, 성문각, 1961, 258쪽].

12) 1957년 8월 적성국가 및 일본 서적에 대한 엄격 배제를 골자로 한 외국도서인쇄물 추천 기준이 발표되었고 1958년 12월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통과 및 공포되고 있었다. 강현, 『강현의 한국대중문화사 2, 자유만세』(이봄, 2016), 179-180쪽.

13) (1) 여원사: 박남중·김용철, (2) 동아출판사: 강봉식·김성환·이종구, (3) 三育出版社: 민창기·송주경·문일영, (4) 經紀文化社: 민창기·송주경·문일영, (5) 승리사: 서광운·임영·송윤희, (6) 哲理文化社: 민창기·송주경·문일영, (7) 동서출판사: 강봉식·김중환·이종구, (8) 문호사: 장세기.

14) 『昨年度 國內 베스트셀러의 1・2位』, 《경향신문》, 1959년 1월 15일자, 1면.

문호사는 엮가관이었다. 1958년부터 붓물을 이룬 문고본의 인기와¹⁵⁾ 이 소설이 호응한 셈이다. 《경향신문》에서는 1958년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1회에 걸쳐 〈醫師 지바고〉 소설을 독점 연재했다.¹⁶⁾ 1959년에는 신협이 차범석 각색, 유치진 연출로 이 작품을 공연(제54회) 하기도 했다.¹⁷⁾ 이렇게 해서 이 소설은 1961년까지 많이 읽혔다.

이 작품을 둘러싼 미·소 양국의 대립은 파스테르나크의 노벨문학상 수상 거부가 정치문제화되어 국제적 파문을 던지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소련 당국은 소설이 10월 혁명을 범죄로 규정하고 소련인을 모독했으며 공산제도 및 공산주의에 대한 악의에 찬 모욕과 중상이자 저급하고 반동적인 문학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노벨상으로 선정된 것은 자유진영의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미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은 작가의 수상거부를 소련 당국의 사상의 자유 말살 사건으로 규정했다.¹⁸⁾ 서구 언론에서는 소련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국가이며 작가는 문학의 자유를 강탈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작품은 시인의 눈으로 쓴 예술가의 증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파스테르나크는 ‘자유정신의 승리자’로 간주되었다.

맑스주의가 과학이랴? 응,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과 「맑스」주의논의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줄잡아도 모험이지. 어쨌든 맑스주의가 과학이 되기에는 근거가 박약하단 말이야. 과학이란 것은 이보다 균형이 있고 객관적인 것이거든. 난 맑스주의처럼 자기중심이고 사실과 동떨어진 것을 보지 못했어. 사람마다 실제적인 일에 자신을 들어맞추려고 야단이고 권력을 잡은 자들로 말하면 자기네의 무오류성이라는 신화를 조작하느라고 야단ियो 진리를 무시하는데 광분하거든. 난 정치엔 관심이 없어. 나로서는 진리를 무시하는 인간들은 질색이야.¹⁹⁾

15) 이봉범, 「1950년대 번역 장의 형성과 문학 번역」, 『대동문화연구』 79권 0호(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468쪽.

16) 「醫師 지바고」, 《경향신문》, 1958년 10월 31일자-12월 10일자(총41회).

17) 이 공연은 곧 금지 명령을 받았다. 공산주의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극대화거나 영화화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이유였다. 「韓國, シバゴ劇化禁止」, 《読売新聞》, 1959년 3월 23일자, 夕刊 4. 공연물 허가 기준(『문교월보』 32호, 1957. 4.)에서 관련 조항을 찾아보면, “〈記(1)〉 1. 순수한 예술적 감명의 명량한 오락을 통하여 자유 세계 생활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것. 〈記(2)〉 4.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국민교육면에 지장을 주고 공익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1. 국가 법률〉 4. 우리나라와 분규 중에 있는 외국에게 유리한 선전을 포함한 것 및 우리나라의 우방에 대한 불리한 선전을 포함한 작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봉범, 「1950년대 문화 재편과 검열」, 『한국문학연구』 34집(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6.), 42-45쪽 참조.

18) “自由抹殺の實證” 『덜』 長官受賞拒否論評, 《동아일보》, 1958년 10월 31일자, 2면.

오늘날의 풍조는 모든 형태의 집단이나 사회를 위한 것이다. 집단이란 범용한 사람들이 「솔로비에푸」나 칸트 또는 「맑스」를 신봉하든 안하든 항상 그들의 인식처이다. 오직 개인만이 진실을 추구한다.

역사는 단 한사람이 이루는 것은 아니다. 역사는 마치 성장하는 풀을 사람이 보지 못하는 듯이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전쟁과 혁명 왕과 「르베스피에르」 같은 혁명지도자는 역사의 유기적인 소인(素因)이요 그 효모이다. 그러나 혁명은 제한된 분야에 자신을 국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천재(天才)를 편협한 지성을 지닌 활동적인 광인이 일으킨다.²⁰⁾

이처럼 냉전질서는 작가와 작품에 반공의 혐의를 씌웠다. '자유진영'이 자본주의세계의 공동운명체를 표상하듯, 분단국가 한국의 시선은 미국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가령 《동아일보》는 『닥터 지바고』에서 소련 및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대목을 발췌하여 신문에 기고했다. 이 발췌문은 소련 사회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보도되었다. 발췌문은 맑스주의의 비과학성, '무오류성의 신화'의 모순, 집단주의 부정과 개인주의와 진리 추구,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의 분리를 통한 혁명이 비판, 이 외에 혁명이 진행되면서 풍습과 전통 및 모든 생활양식 등이 와해되어 버린 현실 등을 포괄하고 있다.

문단에서는 1958년 10월 말 펜·클럽 한국본부와 한국자유학자협회가 소련의 비문화적 독재와 예술인이 노예와 같은 폭정에 처한 현실을 규탄하는 공동 항의문을 발표했다.²¹⁾ 사상계사에서는 저자의 생애와 문학 이력, 작품 즐거리와 해석을 실어 독자의 작품이해를 도왔다.

일련의 장면과 대화와 묘사 또는 회상으로 꾸며진 「닥터 지바고」는 심리적 분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앞시적이며 상징적이고 단편적이며 인상적인 이 소설은 잘 구성된 「유동적 작법」의 전통에서 이탈하고 극적인 요소와 서정적 요소의 독특한 혼합과 단순한 대화와 복잡한 감정과 깊은 철학의 결합으로 그 자체의 지극히 주관적인 형식을 창조하고 있다. 거기엔 이상아릇한 빛이 번쩍이고 있다. 이 아름다운 여러 페이지에서 빛나는 빛속에서 리알리스틱한 정밀성이 로맨틱한 그러나 완전히 제어된 애정과 교착한다.

19) 「醫師 지바고」가 일으킨 世界的波紋(下)」, 《동아일보》, 1958년 11월 1일자, 1면.

20) 「『파스테르나크』의 思想 小説 醫師 지바고 拔萃文集」, 《동아일보》, 1958년 11월 11일자, 4면.

21) 「文學의 自由를 強奪」 파스테르나크事件에 抗議」, 《동아일보》, 1958년 11월 2일자, 4면.

과거 25년 동안의 쏘련소설을 잘 아는 이들에게는 파스텔나크의 소설은 일대 경이이다. 이와 같은 문학적 발견의 즐거움은 어떤 의아심과 뒤섞여진다. 즉 전쟁애를 쏘련국내에서 산 파스텔나크가 모든 외적 압력과 비난에 항거할 수 있고 고도의 독립과 광범한 감정과 비상한 상상력을 가진 작품을 착상하여 집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오늘날 공산주의소설은 항상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묘사하고 그들의 행동과 감정은 사회적 및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²²⁾

『닥터 지바고』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지배이데올로기, 정치적 인간을 중시하는 정치적 소설과 달리 각 등장인물을 개인적인 감정, 본능, 자유, 사상 등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다루었다. 파스테르나크는 “기독교도의 꿈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미덕을 믿어 인생과 미와 사랑과 자연의 가치를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닥터 지바고』의 문학적 위상은 다음과 같이 위치 지어진다. “공산주의가 러시아의 생활과 지성과 역사의 일부를 대표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러시아 국민과 모든 전통과 포부를 대표하지 않는다. 정열과 동경과 이상과 창의성의 전체 세계는 공산기구의 다음에 또는 그 아래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살고, 고무하고, 성장한다. 파스텔나크의 소설은 바로 이 다른 일면의 러시아의 진정한 소리”이다.

이러한 격찬에도 불구하고 노벨문학상과 국제적 명성이 작품의 질을 반드시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김우중은 작품이 현재 소련에 살고 있는 작가에 의해서 발표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지만 공산주의의 모순성을 비판한 작품은 이미 많이 존재하며 파스테르나크의 지적은 조금도 새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비판이 반드시 체제부정은 아니며 소련작가동맹이 노벨상 거절을 두고 오히려 조롱했다는 논거를 바탕으로 소련 사회에서도 허용할 만한 수준의 작품이라고 진단했다. 개체를 집단적인 질서 속에 예측시키려는 현대의 모든 사회조직의 근본정신을 부정하는 파스테르나크의 사상은, 현대사회에 대한 중대한 경고이면서 반공산주의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폭력’ 부정의 태도는 톨스토이나 크리스트의 사상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한 것이었다. 게다가 심장질환에 의한 죽음을 체제의 억압을 상징하는 것으로 처리된 지바고의 병사(病死)는 소설적 리얼리티가 전혀 없어서 설득력이 없다. 이 때문에 김우중은 당대 자유주의 국가의 정치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22) 「움직이는 세계: 「닥터 지바고」의 出版顛末」, 『思想界』(1958. 12.), 121쪽.

노벨상을 준 스웨덴 한림원이 정당한 비평안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²³⁾ 김수영은 “작가의 내러티브가 명확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독자들이 있다”는 당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²⁴⁾

이 소설을 둘러싼 작품 해석과 작가 이해는 1959년 10월 파스테르나크의 자서전적 에세이 『인생여권』이 출간되면서 어느 정도 규명된다. 이 책은 작가의 어린 시절부터 1930년까지 인생과 문학의 성장, 생활신조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문학적 경향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닥터 지바고』에 비판적이었던 김우중도 소련 사회에서 ‘생명을 건 작업’이었음을 인정했듯이, 이 무렵 파스테르나크는 한국에서 “시인은 항상 정의의 편에 서고 인간을 억압하는 세력과 싸운다는 생각을 굳어”²⁵⁾지게 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루마니아 출신 프랑스 망명작가 게오르규(Constantin Virgil Gheorghiu)의 『25시』를 통해 ‘시인(문인)의 사명과 의무’가 사회적으로 퍼져 있었다. 그래서 게오르규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소설 『닥터 지바고』도 파스테르나크의 ‘증언문학’으로 당대에 인식되었다. 다만 이 작품이 반공의 맥락에서 수용되어 그 ‘증언’은 소련 사회의 비정함과 체제 모순을 폭로하는 함의를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자서전의 역사인 신일철은 “암시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비판한 異例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어중중한 인간의 평균화이며 그 인간들은 개성을 상실한 〈얼굴 없는 얼굴〉들이라고”²⁶⁾ 지적했다.

하지만 역사가 지적하듯 이 책은 독자가 작가의 삶과 시와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용은 ‘제1부(1900-1912년 봄): 작곡가 스크라빈 승배, 제2부(독일 1912년 봄-여름: 철학의 길; 이탈리아 1923년-베네치아: 문학의 길), 제3부(1910년 초-1930. 4.): 미래주의 시인 마야코프스키로 구성되어 있다. 파스테르나크는 작곡가를 꿈꾸다가 철학 공부를 하게

23) 「지바고론」, 『現代文學』(1959. 2.), 230-241쪽.

24) 김수영, 「도덕적 갈망자 파스테르나크」(1964), 『김수영 전집 2』(민음사, 2007), 311쪽.

25) 「人生旅券」, 《동아일보》, 1959년 12월 13일자, 4면.

26) 빠스페르나크 著, 申一澈 譯, 『人生旅券: 빠스페르나크의 自敘傳, 一名, 安全通行證』(1931)(博英社, 1959), 8쪽(영역본). 역자는 제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책 제목은 Safe Conduct(英) 혹은 Geleitbrief(獨)로 되어 있어 〈안전통행증〉이라는 뜻이다. 아마도 소련 내에서 인간의 자유와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지바고)와 같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야코프스키처럼 자살하지도 않고 안전통행증으로 통해 왔으며 따라서 몸은 소련내에 있었으나 정신은 망명해 있었다는 뜻에서 안전통행증을 가졌다는 뜻으로도 이해된다. 여기 인간 부정의 상황 속에서 인생의 참뜻을 본 작가의 정신을 살려 〈人生旅券〉이라 제목을 부쳐보았다.”

되는데 첫사랑에 실패하면서 ‘이성’(신칸트학과)보다 감정의 중요성을 직시하게 되고 문학의 길로 접어든다. 길들여지지 않은 ‘반란형 천재’는 도덕적인 걱정, 도덕감각을 통해 기존 문화를 부수고 인류를 재창조한다는 게 그의 예술가론이었다. 그는 상징주의의 블로크(Aleksandr Blok), 안드레이 벨리(Andrei Belyi)와 미래주의의 마야코프스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아류에서 벗어나려 했다. 특히 그는 1914년 5월부터 마야코프스키에 빠져들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낭만주의를 버리고 반낭만주의 시학을 표방하면서 소련 시단의 새시대를 열었다. 그 산물이 시집 『삶은 나의 누이』(1917년 저술, 1922년 출간)였다.²⁷⁾ 제목이 함의하듯 그는 특정 법칙이 아닌 ‘삶’을 자신의 척도로 보고 목숨을 바치는 시인이 된다. 이러한 맥락을 알게 되면 독자는 파스테르나크가 『닥터 지바고』에서 소련 사회를 비판한 맥락을 조금은 알 수 있다.

하지만 냉전질서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이 소설을 둘러싼 당대 국내/외의 상황과 인식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1960년 5월 30일 파스테르나크가 심장 이상으로 사망한 후 이듬해 1월 연인 올가 이빈스카야가 8년, 그 딸이 3년형을 받고 투옥되었다. 이는 실추된 파스테르나크의 명예 회복을 꾀하고 당국이 복수를 하기 위해 올가에게 ‘지바고’의 해외 인세를 착복했다는 혐의를 씌웠다는 게 중론이다.²⁸⁾ 1963년에는 소련 작가 일리야 에렌부르크(Ilja Grigorevich Erenburg)의 회고록이 스탈린 시대의 지식층을 다뤄 ‘제2의 지바고’ 사건으로 이목을 끌었다.²⁹⁾ 결정적으로는 1965년 『고요한 둔강』의 저자 미하일 솔로호프(Mikhail Aleksandrovich Sholokhov)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솔로호프나 파스테르나크나 소련 작가이자 노벨문학상의 저자인데 솔로호프의 수상은 소련에서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스탈린주의자이며 철저한 공산주의자인 솔로호프의 노벨상 작품이 번역될 수 있는지가 관심사였

27)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저, 임혜영 역, 앞의 책(2015), 13-310쪽. 역자는 제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안전통행증’이란 과거에 출입 금지 구역을 통행하도록 허용하는 증서였다. 예를 들면 전쟁 지역에 들어가도록 기자에게, 또는 자살현장에 드나들도록 고인의 가족에게 그 신분을 보장해주는 특별통행증이 그것이다. [...] 따라서 불신과 신분의 위협이 날로 커지던 당시 소련사회에서 〈안전통행증〉은 작가에게 예술가로서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증서를 뜻한다고 하겠다.”

28) 「“파스테르나크”의 名譽回復을 目的 「올가」 女史의 投獄, 《동아일보》, 1961년 1월 24일자, 4면.

29) 「蘇에 第二의 “醫師(의사)지바고” 事件 『에렌부르크』 回顧錄 발행, 《동아일보》, 1963년 3월 27일자, 6면.

다. 평론가 이철범은 “솔로호프의 문학을 소개한다는 것은 공산주의를 매개하는 하나의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출판되기 어렵다”³⁰⁾고 평했다. 그러나 이것은 보리스의 수상 당시 소련의 문학적 자유를 비판했던 한국의 태도와 모순되는 입장이다. 이처럼 1958년 파스테르나크와 1965년 솔로호프의 수상은, ‘노벨문학상의 정치학’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요컨대 1958년 파스테르나크의 노벨상 수상은 한국 사회의 단면을 드러냈다. 출판계에서는 8개가 넘는 번역 경쟁으로 출판사의 재정 악화와 도산을 낳았다. 이는 이후에도 노벨문학상 수상작의 과잉 번역의 ‘전통’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한국의 대다수 독자는 이 작품을 반공문학으로 수용했다. 당대는 1950년대 주류였던 감정반공, 고태반공, 주먹반공 등에서 1960년대 과학적 반공의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닥터 지바고』는 아직 감정반공의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작품과 저자는 각각 증언문학, ‘자유’의 수호자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해당 작품이 반공의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작품 속 소련 사회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한국인은 정보가 차단된 소련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러시아혁명은 세계적인 학문적 대상이자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많은 이의 호기심을 자아낸다. 특히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과 자서전적 소설이라는 장르적 형식이 혁명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러시아혁명과 그 전모를 쉽사리 드러내지 않는다. 소설의 지바고는 구 귀족사회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시선으로 현실을 포착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혁명 중간에 모스크바를 벗어나 우랄 등 여타 지역으로 피신을 가기 때문에 독자는 시대적 혼란과 탄압의 분위기를 느낄 뿐 혁명의 실재에 다가가기 어렵다. 이 때문에 반공이 아닌 러시아의 역사가 궁금한 독자였다면 파스테르나크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소련 작가의 작품을 읽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이다.

30) 이철범, 「全體主義國家와 文學」, 《동아일보》, 1965년 11월 6일자, 5면.

III. 부분 복권, 영화 개봉과 솔제니친의 노벨상 수상, 라라의 고백

1958년 번역된 『닥터 지바고』는 거의 10년 간격으로 흥행한다. 1968년 영화가 한국에 수입되고 1970년 소련 작가 솔제니친(Aleksandr Solzhenitsyn)이 노벨문학상을 타면서 『닥터 지바고』도 2차 흥행을 하게 된다. 3차 흥행은 1977년 번역가 안정효가 자서전 『안전통행증』을 영역(英譯)한 『어느 시인의 죽음』과 1978년 파스테르나크의 연인 율가 이빈스카야의 회고록 『라라의 회상』이 출간되고 1978년 〈닥터 지바고〉가 신정영화로 재개봉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69년부터 2000년까지 『닥터 지바고』는 한 해도 빠짐없이 간행되었다. 특히 1970년대보다 1980년대에는 번역, 간행한 출판사의 수가 더 증가했으며 1990년대에는 그보다 더 많은 출판사가 번역에 동참했다.

먼저 2차 흥행시기를 살펴보면, 미국 MGM사가 제작한 미·영 합작영화 〈醫師 지바고〉(Doctor Zhivago, 3시간 20분)가 1965년 12월 미국에서 개봉되었다. 〈콰이강의 다리〉로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 데이비드 린(David Lean)이 감독으로 참여했고, 오마 샤리프, 줄리 크리스티, 채플린의 딸 제랄디 등이 배우로 출연했다. 이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비견될 만큼 격찬을 받고 1966년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에서 최우수각색상, 창작음악상, 촬영상, 세트 장식상, 기술감상, 색채 의상상을 차지했다. 줄리 크리스티는 여우주연상을 받았다.³¹⁾ 또한 동년 외국 기자단은 최우수작품상과 최우수남우상을 주었다.³²⁾ 이 영화는 역대 영화흥행사상 최장 상영기록과 최대의 동원기록을 수립했으며, 1967년 파리에서는 영화 속 여주인공이 입고 나온 옷 스타일이 유행을 타기도 했다.

그런데 이 영화는 2년이 지나서야 한국에 수입될 수 있었다. 한국 영화인들이 1966년 이 영화의 수입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소련 작가의 작품이며 공산권을 배경으로 한 화면이라는 이유로 수입허가를 보류했다. 그러다가 문공부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이 영화의 상영을

31) 「映畫『醫師 지바고』 아카데미賞에 有力」, 《경향신문》, 1965년 12월 27일자, 2면; 「아카데미賞 발표」, 《동아일보》, 1966년 4월 19일자, 7면.

32) 「『醫師 지바고』로 記協 最優秀영화」, 《동아일보》, 1966년 2월 2일자, 4면.

보류하고 있고 작품이 사실상 반공영화라는 대중의 여론을 참작하여 1968년 말 수입 추천을 했다.³³⁾ 대한극장 영화 시사회에는 보이스카웃연맹 총재인 김종필이 참석했다. 당국이 염려했던 이유는 당대 한국 관객의 반응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소설가 박경리의 연재소설 〈죄인들의 숙제〉에는 〈의사 지바고〉의 주제음악이 다방에 흘러나오고 등장인물 ‘희련’이 영화장면을 연상하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있다.³⁴⁾ 또한 시인 오탁번은 원주고 2학년 때 소설을 처음 읽은 후 1968년 대학 3학년 때 대한극장에서 영화를 경험했다. 그는 이 영화가 40년간의 운명적 창작과 사랑을 이끌었다고 고백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는 지바고와 라라처럼 목숨을 건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하고 싶었고 시와 소설 창작에 파묻혀 대학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다.³⁵⁾ 오탁번의 첫 시집 『아침의 예언』(1973)에는 〈라라에 관하여〉란 시가 실려 있다.³⁶⁾

33) 「벌지 않아 한국에도 상륙하는 영화 의사 지바고」, 《경향신문》, 1968년 11월 9일자, 5면; 1962년 1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정으로 한국 최초의 영화법이 공포된다. 이때 ‘제작신고제’, ‘상영허가제’, ‘외화수입추천제’를 범제화하여 영화에 대한 통제가 체계화된다. 여기서 ‘제작신고제’와 ‘상영허가제’는 필름에 대한 사전검열과 사후검열에 해당하는 것이고, ‘외화수입추천제’는 국산영화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지닌다. 이후 검열이 강화되면서 1964년 말 이만희 감독의 영화 〈7인의 여포로〉, 1966년 이만희 감독이 반공법에 저촉되었고 1966년 8월 3일 영화법 개정으로 검열이라는 단어가 명문화되었다. 개정된 영화법에서는 검열에 저촉되는 기준 항목부터 늘어난다(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1966년 지바고 영화 수입 신청 이전, 1965년 유훈목의 영화 〈순교자〉(1965. 6. 17.)가 제작될 때 검열의 핵심 주제인 중앙정보부는 ‘공산주의=북한군=절대악’ 대 ‘자유주의=남한군=절대선’, 혹은 ‘북한=절대민곤=지옥’ 대 ‘남한=절대행복=천국’과 같은 극단적 도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영화산업은 어려워져갔고, 반공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영화지원정책의 수혜를 얻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박유희, 「문예영화와 검열」, 『영상예술연구』 17집, 영상예술학회, 2010, 175-195쪽). 1968년경부터 박정희 정권기는 영화에 대한 반공의 적용범주가 넓어져 ‘절망’, ‘퇴폐’ 등도 ‘용공’이 될 수 있었다. 이후 집단적인 명랑과 건진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1970년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박유희, 「박정희 정권기 영화 검열과 감성 재현의 역학」, 『역사비평』 99집(역사비평사, 2012. 5.), 45-46쪽.

34) 박경리, 「罪人들의 宿題(154)」, 《경향신문》, 1969년 11월 20일자, 4면.

35) 오탁번, 「닥터 지바고」, 《경향신문》, 2009년 1월 4일자.

36) “原州高校 이학년 겨울, 라라를 처음 만났다 / 눈 덮인 稚岳山을 한참 바라다보았다 // 7년이 지난 2월달 아침, 나의 天井에서 겨울바람이 달려가고 / 대한극장 이층 나레 14에서 라라를 다시 만났다 // 다음 날, 서울역에 나가 나의 내부를 달려가는 겨울바람을 전송하고 / 돌아와 高麗歌謠語釋研究를 읽었다 // 형언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만드는 바람소리에서 깨어난 아침 / 次女를 낳았다는 누이의 해산 소식을 들었다 // 라라, 그 보잘 것 없는 게집이 돌리는 겨울 풍차소리에 / 나의 아침은 무너져 내렸다 / 라라여, 本能의 바람이여, 아름다움이여.” 오탁번, 「라라에 관하여」, 『아침의 豫言』(朝光출판

이처럼 영화를 본 관객은 영화의 주제곡인 <라라의 테마>와 소련의 아름다운 초원과 설원(雪原), 주인공의 애절한 사랑에 빠져들었다. 이 영화는 문예영화, 예술영화였다.³⁷⁾ 이는 소련을 지옥, 철의 장막, 불륜의 공간으로 폄하해왔던 당국의 반공과 괴리되는 지점이었다. 독자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소설에서는 혁명이, 영화에서는 사랑이 더 많이 체감되었던 것이다. 영화는 국내에서 1972년 초까지 대한극장에서 상영되고, 주제곡 <라라의 테마>는 음반으로 나와서 1974년경 인기를 끌었으며, 1976년에는 배우극장이 차범석 연출의 <의사 지바고>를 공연했다. 국외에서는 1972년 미국 역대 최고영화 6위, 1976년 미국 역대 흥행베스트 10위에 올랐고, 1973년 베트남 사이공(현 호찌민)에서 상영되어 젊은 남녀들이 초만원을 이루었다. 그리고 1975년 이집트는 소련의 요청으로 금지해오던 이 영화의 상영을 해제했다. 다양한 연령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봤는데 특히 젊은 층이 '지바고의 사랑'을 함께 호흡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 전후 한국에서 '지바고'의 흥행은 영화뿐만 아니라 1970년 솔제니친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1974년 소련 추방의 영향도 한몫을 차지했다.³⁸⁾ 소련에서 파스테르나크는 1958년 소련작가동맹에서 제명된 지 9년 만인 1967년 5월 부분 복권되어 소설은 제외하고 일부 시집의 출간이 가능해졌다.³⁹⁾ 그러나 1968년부터 소련의 지식인 탄압과 추방이 다시 강화되고 솔제니친은 『암병동』의 출간을 놓고 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소련 정부가 『암병동』의 국내출판을 금지하고 외국에서 사전출판을

사, 1973).

37) 「예술적 향기 짙은 영화 '의사지바고' 우리나라 개봉 앞둔 지상시사회」, 《조선일보》, 1968년 12월 15일자, 조간 5면.

38) 주지하듯이 1970년대 전반기는 서방진영과 공산국가 간 일시적 긴장완화와 닉슨-킨신저의 대소·대중 화해정책의 '테팡트'의 시대가 된다(여기에 대해서는 박인숙, 「"전환"과 "연속": 닉슨(Richard Nixon)행정부 "테팡트"정책의 성격」, 『미국학논집』 38권 3호, 한국아메리카학회, 2006, 117-154쪽 참조). 하지만 국내에서는 1971년 말 북한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1972년 10월 17일 하오 7시에 계엄포고 1호가 발효되었으며, 1973년에는 '유신영화법'으로 불리는 영화법 4차 개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1970년대 대부분의 국책영화에 '간첩'이 소재로 삽입된다. 이러한 시기에 국내외에서 '지바고'와 '솔제니친'의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39) 「故 파스테르나크에 9년 만에 死後復權」, 《동아일보》, 1967년 5월 23일자, 4면. 솔제니친에 따르면 파스테르나크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책이 다시 출판되고 시는 공식석상에서도 인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솔제니친,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백낙청 편, 『문학과 행동』(태극출판사, 1974), 425쪽.

피하러 하자 솔제니친은 ‘지바고’처럼 반소선전을 위해 이용된다는 트집을 잡아 국내출판을 막으려 한다는 비판을 했다. “소련당국자는 ‘암병동’이 소련 전체가 도덕적 정치적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풍자했다”는 입장이었다.⁴⁰⁾ 이후 솔제니친은 197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1974년 소련에서 독일로 추방당하게 된다.

‘솔제니친 사태’는 한국 독자에게 ‘지바고’를 연상케 했다. 소련의 압력으로 노벨상 수상을 거부한 파스테르나크와 비교되는 솔제니친의 수상과 추방은 소련이 여전히 자유와 예술을 억압하는 독재국가라는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환기했다.⁴¹⁾ 그의 소설 『암병동』은 『닥터 지바고』에서 지바고의 심장질환에 의한 죽음과 비견된다. 체제의 억압의 징후인 지바고의 심장질환이 솔제니친에게는 암병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작가 자신의 병력(病歷)의 영향도 있지만 여하튼 독자의 소련상을 고착시키는 데 일조했다. 솔제니친의 노벨문학상 번역 경쟁도 치열했다. 《경향신문》에서는 그의 자서전을 연재했고, 사상계사, 동아출판공사, 문예출판사, 지문각, 서정출판사 등이 『이반테니소비치의 하루』의 번역 출간에 뛰어들었으며 1974년에 번역된 『수용소군도』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무렵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동물농장』, 『1984』, 게오르규의 『25시』 등이 함께 인기를 모으면서 반공문학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⁴²⁾ 이때 『닥터 지바고』도 솔제니친과 결부되어 읽혔다. 다른 출판사가 『닥터 지바고』만 출간했다면 동화출판공사는 1970년, 1972년, 1977년, 1980년에 걸쳐서 솔제니친의 『이반테니소비치의 하루』와 파스테르나크의 소설을 묶어서 세계문학전집을 꾸렸다.⁴³⁾ 안정효는 1974년 잡지 『수필문학』에 자서전 〈어느 시인의 죽음〉을 1년 반 동안 연재했고, 『닥터 지바고』는 1975년 고려대학교 〈교양 명저 60선〉, 경희대 대학생대출순위 7위에 선정되었다.

40) 「蘇聯의 새로운 知識人 彈壓」, 《경향신문》, 1968년 5월 29일자, 5면.

41) 1977년 소련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의사 지바고〉 영화를 상영하자 소련 당국이 소련 역사를 잔인한 것으로 왜곡하는 영화 상영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해친다며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蘇, 美大使館 내 映畫상영까지 간섭」, 《경향신문》, 1977년 4월 21일자 3면.

42) 이행선, 「게오르규의 수용과 한국지성사의 ‘25시’: 전후문학, 휴머니즘, 실존주의, 문명 비판, 반공주의, 어용작가」, 『한국학연구』 41집(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5.), 9-41쪽 참조.

43) 파스테르나크·솔제니친 저, 이동현·오재국 공역, 『세계의 文學大全集, 醫師 지바고·이반테니소비치의 하루』(同和出版公社, 1971).

이처럼 『닥터 지바고』의 2차 흥행 시기는 영화의 수입과 음악시장의 성공, 솔제니친의 국제적인 조명이 결부되었다. 솔제니친은 『닥터 지바고』의 혁명과 죽음을 반공의 맥락에서 다시 환기했고, 영화와 음악은 주인공 지바고와 라라의 목숨을 건 사랑을 대중의 기억에 각인시켰다. 그리고 이 시기는 독자의 반응이 '반공'에서 '사랑'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무렵이다. 영화와 함께 비디오가 도입되고 음반이 팔렸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반소감정과 반공보다는 명작 문예영화의 예술성과 이색적인 풍광, 열렬한 사랑이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 무렵 소련에서는 1967년 부분 복권 조치가 있었고 1974년에는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yov) 전 수상이 파스테르나크의 작품을 읽지도 않고 탄압한 것을 후회한다는 회고록이 발표되고 있었다.⁴⁴⁾

『닥터 지바고』의 3차 흥행은 197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 1977년 안정효의 영역본 『어느 시인의 죽음』이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닥터 지바고』는 1978년 1월 신정영화로 재개봉되어 1981년까지 흥행했다.⁴⁵⁾ 1980년 11월에 상영했을 때는 관객 30만 명이 예상되었는데, 학생, 중년층 관객도 상당히 동원했다.⁴⁶⁾ 이 영화는 1983년까지 영향을 미쳐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지바고 머리'가 유행하기도 했다. 1978년에는 파스테르나크의 연인 올가 이빈스카야가 1972년에 쓴 회고록이 번역되어⁴⁷⁾ 베스트셀러가 되고 1980년 서울 경복고교가 선정한 권장도서 50에 '지바고'가 포함되었다. 1981년에는 백학기가 시 〈삼류극장에서 닥터 지바고를〉의 2편의 추천을 받아 현대문학에 등단했고⁴⁸⁾, KBS2 FM이 기획한 '청취자가 뽑은 인기영화 20곡'에서 '닥터 지바고'가 3위에 올랐다.⁴⁹⁾

44) 「續 “흐루시초프는 記憶한다”」, 《경향신문》, 1974년 4월 30일자, 2면; 흐루시초프 著, 鄭洪鎭 譯, 『世界の 大回顧錄全集, 흐루시초프』(翰林出版社, 1981).

45) 영화검열의 효과는 1960년대부터 유신체제 이전까지가 가장 강력했고, 197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검열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저촉되는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검열제도와 영화의 괴리가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서 기존 반공의 이데올로기적 도식을 넘어서는 반공영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반공문예영화'로 분류되는 〈장마〉(1979)가 그 한 예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독자들은 영화 〈닥터 지바고〉를 접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유희, 「문예영화와 검열」, 『영상예술연구』 17집(영상예술학회, 2010. 11.), 195쪽 참조.

46) 「불황 모르는 '닥터 지바고」, 《동아일보》, 1981년 1월 21일자, 12면.

47) 외국에서는 1977년, 한국에서는 1978년에 번역되었다. 「의사지바고」 모델 이빈스카야, 회고록 출간」, 《조선일보》, 1977년 10월 29일자, 조간 4면.

48) 白鶴基, 「삼류극장에서 닥터 지바고를 외 2편(추천)」, 『현대문학』(1981. 6.), 218-219쪽.

49) 「러브 스토리」 1위 인기영화음악 20곡」, 《경향신문》, 1981년 10월 28일자, 12면.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본 소설가 박완서는 영화가 원작에 충실하고 전편에 흐르는 시정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평했다. 지바고는 방관자일 뿐 한 번도 자발적인 참여나 행동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 그에게 자발적인 의지라는 게 있다면 사생활의 행복과 끝내 획일화되기를 거부하는 내적 생활(시)의 추구였다. 이런 점은 혁명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분명히 반혁명적이라는 게⁵⁰⁾ 박완서의 진단이다. 이에 비해 일반 관객들은 혁명보다는 '사랑'에 초점을 두었다. 대다수 20대 남녀는 '사랑다운 사랑',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했다.⁵¹⁾

이때 번역된 『어느 시인의 죽음』과 『라라의 회상』도 각각 혁명과 예술, 사랑과 '지바고' 사건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1930년까지의 기록이고 후자는 올가 이빈스카야가 파스테르나크를 만나는 1946년 10월부터의 내용이다. 두 사람의 사랑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후자를 선호했을 것이다. 게다가 전자는 신일철이 1959년 번역 출간한 『인생여권』을 안정효가 『어느 시인의 죽음』으로 이름을 바꿔 출간한 영역본이다. 안정효는 1974년 잡지 『수필문학』에 1년 반 동안 연재하기도 했다.⁵²⁾ 독자 입장에서는 후자가 더 신선하고 새로운 정보였다.

올가 이빈스카야의 회고록 『라라의 회상』(1978)은 1970년 솔제니친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후 집필을 시작하여 1972년 완결되었고 1977년 서구에 『시대의 포로(A Captive of Time)』라는 제명으로 출간되었다. 책은 올가가 보리스를 만난 시점부터 1960년 보리스의 사망, 이후 자신의 수감과 출옥, 19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올가의 소회를 담고 있다. 그런데 머리말을 보면 올가가 책을 쓴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그녀는 “잘못된 추측으로부터 파스테르나크의 이름을 보호하고 그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고” “재난으로 가득 찬 자신의 생애를 고백”하고자 했다.⁵³⁾ 즉, 이 회고록은 파스테르나크가 노벨상을 거부하게 된 경위, 올가 자신의 인세 횡령혐의와 투옥, 솔제니친의 파스테르나크 비판에 대해 변호하고 1946년부터 1960년까지 올가와 파스테르나크의 사랑과

50) 「박완서, '닥터 지바고」, 《동아일보》, 1978년 1월 28일자, 5면.

51) 「영화관객」, 《경향신문》, 1978년 3월 8일자, 4면.

52) 번역 텍스트는 1959년 미국 Signet판으로 The New American Library of World Literature, Inc.가 펴낸 「Safe Conduct」의 초판본을 사용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저, 안정효 역, 『자서전적인 에세이: 어느 시인의 죽음』(1977)(가치, 1981), 236쪽.

53) 올가 이빈스카야 저, 신정옥 역, 앞의 책(1978), 11쪽.

그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회고록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라라의 회상〉
1부. 노비 미르(1946. 10. 첫 만남; 1949. 10.(체포-스탈린 사후 사면령1953); 1960년까지 14년 함께함)
2부. 시인과 황제(=보리스와 스탈린의 관계)
3부. 의사 지바고(1955-1958)
4부. 시인의 죽음(보리스 말년): 1960. 5. 30. 사망

먼저 올가와 보리스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보리스는 1923년 첫 결혼을 한 후 1929년 저명 피아니스트의 아내인 지나이다 니콜라예브나와 두 번째 결혼을 했다. 잡지사 『노비미르』에서 근무하던 올가(34세)는 1946년 10월 보리스(56세)와 처음 만나게 된다. 이후 보리스는 1960년 사망할 때까지 아내 지나이다와 이혼하지 않은 채 올가와 동거 생활을 했다. 이때 올가는 보리스의 문학적 뮤즈, 영감의 원천이었다. 특히 『닥터 지바고』는 그녀가 직접 교정한 작품이었다.⁵⁴⁾

올가가 노벨상과 관련된 내막을 고백하게 된 것은 솔제니친의 수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파스테르나크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1958년에 솔제니친은 중학교 교사였다. 한 나라의 대표적인 문학자이자 세계적인 상을 받은 작가가 수상을 거부한 사건은 솔제니친에게 충격이었다. 솔제니친과 그를 추종하는 일원은 그 사건을 소련 인민의 굴욕과 굴종, 치욕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솔제니친이 197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을 때도 그는 파스테르나크의 예를 들며 자신은 수상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수상거부는 사상과 정신의 포기이자 비굴함을 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971-1972년에 회고록을 작성한 올가는 1958년

54) 올가에 따르면 파스테르나크는 미국에서 『닥터 지바고』를 암호처럼 해석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그 소설은 50년 동안의 러시아의 현실을 그린 것이었다. 소설에서 상징을 인정하지 않은 그는 작품에 스며들어 작품이 되게 하는 무한한 어떤 열망을 중요시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인생관과 현실인식이 중요하다. 그는 절대적 필연성, 불변의 인과를 타파하고 내적 충동의 표현을 중시했다. 특히 선택의 힘과 자유, 이것들이 빚어내는 가능성의 현실을 꿈꿨다. 또한 작품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서슴없이 생략한 이유는 일상의 현실로 진리를 표현하는 '일상생활로부터의 우화'를 사용해 '인간 사이의 영적 교섭은 영원불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위의 책, 124쪽, 129쪽.

노벨수상작 거부는 사실 당국의 회유를 이겨내지 못한 자신이 파스테르나크를 대신해 한 일이라고 털어놓았다. 또한 그녀는 당시 『닥터 지바고』(1946년부터 집필-1955년 완성, 1957년 출간) 수준의 소련 비판 소설을 쓴 사람은 파스테르나크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 엄혹한 시기에 파스테르나크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사후(死後) 문단에 등장한 솔제니친은 상대적으로 편한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⁵⁵⁾

파스테르나크의 곤란은 올가 자신의 고초로 몇 배 확장되었다. 유명 작가를 어찌지 못한 당국은 올가를 두 번이나 수용소로 보냈다. 그녀는 1949년 ‘영국에 가족이 있어서 영국 스파이 혐의를 받는 파스테르나크’와 가까이 지낸다는 명목으로 수용소로 보내져 5년여의 시간을 갇혀 지냈다. 작가가 작고한 후에는 외국의 인세를 불법으로 밀반입했다는 거짓 혐의가 씌워졌으며, 올가는 8년, 그 딸은 3년형이 구형되었다. 그래서 올가는 회고록에서 자신의 삶이 “재난으로 가득 찬 생애”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올가를 통해 소련 사회가 일종의 ‘재난사회’임을 암시받게 된다. 동시에 회고록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올가의 사랑과 존경심을 느낀 독자라면 영화 속 ‘지바고-라라’의 사랑보다 더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이처럼 이 시기 소련에서는 파스테르나크가 부분 복권되어 소설을 제외한 나머지 편지나 자서전, 일부 시 등을 출간했고, 소련 밖에서는 많은 나라의 독자들이 영화를 통해 반공의 범주를 넘어 ‘사랑’과 소련의 아름다운 자연, 영화음악 라라의 테마뮤직 〈Somewhere My Love〉의 감미로운 선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독자는 1965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솔로호프의 경우와 다른 1970년 솔제니친의 수상작을 둘러싼 출판사의 번역 경쟁을 보면서 이념이 작동하는 국제질서와 한국 사회의 ‘노벨상의 정치학’을 체감하게 된다. 하지만 영화의 대중화 덕분에 1958년 이래 지속된 반공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일상의 본능적인 욕망인 사랑의 테마가 작품 해석에 중요해졌다.

55) 위의 책, 126-127쪽.

IV. 1980년대 중후반 파스테르나크의 완전 복권과 추억의 명화

‘지바고’의 4차 인기는 1986년경 소련 사회의 해빙과 한국의 영화 관련 구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이전 1982년 소련작가동맹은 페레델키노에 있는 보리스의 별장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청구하여 1984년 10월 17일 강제 폐쇄했다.⁵⁶⁾ 하지만 1983년 보리스의 산문집 『하늘의 오솔길』이 소련에서 처음으로 공식 출간되었다.⁵⁷⁾ 이는 1968년 일부 시와 회고록이 허가된 이후 처음으로 진전된 조치였다. 이 해빙무드는 1985년 3월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제8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면서 가속화되었다. 1986년 초 소련에서 보리스의 작품 선집 2권이 출판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⁵⁸⁾ 이 무렵 1986년 봄 제27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된 고르바초프의 신강령은 경제개혁과 능률성, 소득격차를 장려하는 현대적 사회주의의 도입을 뜻했다.⁵⁹⁾ 그가 소련 사회의 개방성과 비판정신의 제고를 표방한 이후 1986년 6월 소련작가동맹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개혁파 저명작가들이 서기국의 1/3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사회개혁과 예술자유화 바람에 따라 1986년 6월 개최된 ‘소련작가동맹대회’에서는 과거의 문화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반혁명가로 낙인찍힌 보리스의 전집 발간과 탄생 100주년 기념박물관 건립 등을 논의했다.⁶⁰⁾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완전 복권은 당시 소련의 개혁의 향방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였다. 그 결과 1987년 1월 6일 소련작가협회는 파스테르나크의 작품을 연구할 연구회를 구성했으며⁶¹⁾, 동년 6월 소련에서 처음으로 파스테르나크의 공식 추모제가 열렸

56) 「파스테르나크 시골집 내놓으라」—蘇 作家동맹·文學基金서 요구, 《동아일보》, 1982년 2월 4일자, 10면; 「파스테르나크 博物館 蘇 당국, 강제 폐쇄 조치」, 《경향신문》, 1984년 11월 9일자, 4면.

57) 「파스테르나크 散文 蘇聯에서 처음 出版」, 《경향신문》, 1983년 1월 5일자, 4면.

58) 「닥터 지바고의 作家 파스테르나크 蘇서 30년 만에 再評價 바람」, 《동아일보》, 1986년 2월 26일자, 12면.

59) 「소련의 ‘現代의 사회주의」」, 《동아일보》, 1986년 7월 28일자, 2면.

60) 「蘇 文化界 ‘解禁’ 바람」, 《동아일보》, 1986년 8월 6일자, 8면; 「파스테르나크 소련서 “복권”」, 「닥터 지바고」 급서해제 검토」, 《조선일보》, 1986년 7월 2일자, 조간 4면.

61) 「파스테르나크 作品」, 《동아일보》, 1987년 1월 7일자, 6면.

다.⁶²⁾ 그 결과 1988년 1월 31년 만에 소설 『닥터 지바고』의 1부가 잡지 『노비미르』 1월호에 완전 게재되는 결실을 거두었고⁶³⁾, 1989년 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처음으로 영화 상영이 허용되었으며⁶⁴⁾, 동년 12월 31년 만에 보리스의 자식이 노벨문학상 메달을 대신 받았다.⁶⁵⁾ 1990년에는 유네스코가 동년을 ‘파스테르나크의 해’로 지정하며 탄생 100주년을 기념했고 소련에서 기념관이 첫 문을 열었다.⁶⁶⁾ 이때 올라 이빈스카야는 1988년 시민으로 복권되었다.

한국에서는 1980년경의 영화 흥행 여파로 ‘지바고’는 1983년 청소년이 뽑은 ‘베스트영화 15’에 포함되었고⁶⁷⁾ 명저로 소개하는 글도 나왔다.⁶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에서는 작중인물의 이름이 길고 복잡한 소설보다는 영화나 주제음악을 통해 더 알려진 상황이었는데, 이 경향은 1986년 국내 영화업계가 영화와 TV판권을 구입하면서 재확인된다. KBS TV가 MGM사로부터 4만 달러에 TV판권을 구입하고, 영화사 삼영(三映)필름이 극영화총판인 영국 UIP사로부터 4만 달러에 판권을 구입하여 상영에 나섰다.⁶⁹⁾ 그 결과 KBS 시청자가 뽑은 ‘1986년 영화베스트 5’에 ‘지바고’가 포함되었고 영화팬의 앙코르요청으로 〈토요영화〉 시간에 재방송되었다.⁷⁰⁾ 소설은 1990년 《동아일보》 선정 ‘대학신입생 권장도서’가 되었으며 영화음악은 2000년대 초반까지 사랑을 받아 각종 기념 공연이나 팝콘서트에서도 계속해서 연주되었다.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긴 것은 미디어산업의 성장이었다. 1987년 7월 영화시장 개방으로 외국영화사의 한국

62) 「蘇 파스테르나크 첫 공식추모」, 《동아일보》, 1987년 6월 12일자, 4면.

63) 「소련, 닥터지바고 첫 출간 문학잡지 연재 시작」, 《조선일보》, 1988년 1월 13일자, 조간 5면.

64) 「蘇 ‘닥터 지바고’ 상영 금지 30년 만에 허용」, 《경향신문》, 1989년 2월 11일자, 5면.

65) 「復権・故パステルナーク氏 31年ぶりの授与式」, 《読売新聞》, 1989년 12월 11일자, 朝刊 30면.

66) 1990년 2월 ‘보리스 탄생 1백주년 기념제’에는 시인이자 홍익대 교수인 문덕수가 참석했으며, 동년 5월 ‘보리스 30주기 추모 학술대회’에는 한양대 영문과 교수이자 시인인 신동춘이 참가했다.

67) 「청소년들 오스카賞 좋아한다」, 《경향신문》, 1983년 5월 18일자, 12면.

68) 이철, 「명저의 초점: 파스테르나크의 의사 지바고」, 『북한』 제160호(북한연구소, 1985. 4.), 207-213쪽; 문병란, 「혁명·인간·사랑에 대한 고뇌」, 『닥터지바고』, 파스테르나크 著, 『現代文學』(1988. 11.), 278-279쪽.

69) 「美製作社, K-TV・三映필름 상대 「닥터지바고」同時판매 「횡포」」, 《경향신문》, 1986년 1월 16일자, 12면.

70) 「시청자가 뽑은 86映畫「첵프」등 5편 이달 再放」, 《경향신문》, 1986년 12월 5일자, 7면.

내 영업이 허용되면서 당시 다양한 외화 및 명화가 수입되었고⁷¹⁾, 영화가 비디오로 제작되어⁷²⁾ 선물을 하거나 소장할 수 있게 되면서 대중은 손쉽게 작품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출판계에서는 1980년대 중후반 고리키의 『어머니』나 솔로호프의 『고요한 둔강』 등 소련의 대작이 출간되면서⁷³⁾ 한국 사회에서 소련문학의 온전한 수용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1991년에도 소설은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 스테디셀러로 명명되었다.⁷⁴⁾

1990년대에는 영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한국을 방한하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닥터 지바고’가 환기되고 영화도 꾸준히 상영되었다. 1991년 데이비드 린 감독과 배우 킨스키가 사망했고, 이듬해 프랑스의 영화음악 명곡가인 모리스 자르(Maurice Jarre)와 배우 오마 샤리프가 내한했다. 1995년에는 울가와 각본을 쓴 볼트가 사망했으며, 오마 샤리프가 만든 담배 ‘오마 샤리프’가 국내에 시판되었다. 또한 영화는 1993년 비디오 직판제가 본격화되면서 작품이 더 널리 퍼졌다. 1994년 세계 개봉 30주년 기념으로 복원된 영화 〈닥터 지바고〉는 1995년 주부의 기억에 남는 영화 5위에 올랐으며⁷⁵⁾ 1999년에는 복원된 무삭제판이 대한극장, 스키라극장, 정동이벤트홀 등에서 개봉되었다.⁷⁶⁾ 이 영향으로 1997년에는 ‘시청

71) 「『홀려간 名書』 輸入 畧」, 《동아일보》, 1987년 1월 22일자, 8면.

72) 「명감독 데이비드 린 대표작품 3편」, 《한겨레》, 1990년 4월 15일자, 12면.

73) 막심 고리키 저, 최영민 역, 『어머니』(석탑, 1985); 막심 고리키·알렉세이 톨스토이, 『어머니, 고난의 역정』(만민사, 1988); 마하일 솔로호프 저, 정성환 역, 『고요한 둔강』 1-8(문학예술사, 1985); 솔로호프, 『동서세계문학전집, 고요한 둔강』(동서문화사, 1987) 등.

74) 「몸만 생각하는 가을 ... 책도 건강類 불티」, 《경향신문》, 1991년 10월 9일자, 12면.

75) 「주부들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서편제’」, 《매일경제》, 1995년 5월 28일자, 16면.

76) 「걸작영화 닥터 지바고 ‘감동 무삭제’ 서울 30일 대한극장서 70mm 완전판 상영」, 《경향신문》, 1999년 1월 15일자, 25면; 「정동이벤트홀 70mm영화 맥 잇는다」, 《한겨레》, 1999년 2월 4일자, 16면; 그 이전에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는 30여 분 정도 잘려나간 것이었다. 특히 영화 초반 1905년 1차 혁명 때 평화시위 민중이 부른 노래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는 외화에 적용된 검열의 한 예이다. 복원된 영화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었 어 있다. 러시아 문학자이자 서평가인 이현우에 따르면 “1905년에 일어난 제1차 러시아 혁명 당시 러시아에서는 러일 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사회가 동요하고 민중의 불만이 폭발하여, 학생 소요와 함께 정치적 테러, 암살이 횡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겨울 궁전 앞에서 평화 시위를 하던 군중을 제국의 군대가 무차별적으로 유혈 진압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때 시위대가 가두 행진을 하며 부른 노래가 〈인터내셔널가〉였다. 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자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로,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 이후 구소련(구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 1944년까지 국가(國歌)로 사용하기도 했다.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한 에스파냐의 국가주의자들은 이 시위 장면을 찍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내셔널

자가 뽑은 다시 보고 싶은 영화 50'에서 9위였고⁷⁷⁾ 같은 해 '문인이 뽑은 문학적인 영화' 1위였으며⁷⁸⁾, 1999년에는 전문가가 뽑은 '20세기 걸작'에서 6위, 네티즌이 뽑은 걸작 4위에 선정되었다.⁷⁹⁾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책의 소비는 출판사 '열린책들'을 참고할 수 있다. '열린책들'의 판본을 살펴보면 초판(1990. 2. 25.), 초판 2쇄(1993. 11. 15.), 신판 1쇄(2001. 4. 15.), 신판 3쇄(2004. 12. 10.), 보급판 1쇄(2006. 2. 25.), 보급판 4쇄(2009. 1. 30.), 세계문학판 1쇄(2009. 11. 30.), 세계문학판 2쇄(2011. 1. 30.) 등이다. 1990년대 말 이후 민음사를 중심으로 한 세계문학의 붐을 고려했을 때 『닥터 지바고』는 그리 인기 있는 작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그 붐에 동참했던 출판사 중에서 『닥터 지바고』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없다. '열린책들'도 지금은 절판상태다. 이는 1990년 전후 동구권과 소련의 몰락 이후 소련에 대한 관심이 급감하고 소설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그리고 고전 명작영화의 쇠퇴, 소련 비판 소설의 계보에서 솔제니친의 인기보다 낮은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즉, 작품의 생명력이 거의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⁸⁰⁾

하지만 이 작품, 특히 영화가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고 추억을 안겨준 것은 분명하다. 시간이 흐르고 여러 차례 방영되면서 1990년 이후 영화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2008년 김의준(드라마 투자 배급사 ssD 대표)은 1983년 여름 고3 때 대학도서관에서 영화를 접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떠올렸다. "내 인생의

가)를 불러야 했다." 로자, 〈유토피아의 종말 이후의 유토피아〉; blog.aladin.co.kr/mramor/2252568

77) 「감동과 추억의 그 영화 ... 새봄 안방은 '시네마 천국」, 《동아일보》, 1997년 2월 22일자, 17면;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로마의 휴일' 1위」, 《동아일보》, 1997년 2월 25일자, 44면.

78) "한국의 문인들은 데이비드 그린 감독의 「닥터 지바고」를 가장 문학적인 영화로 꼽았다. 이는 월간지「문예2000」이 최근 시인 황금찬, 정현중, 김정란, 황지우 씨 등과 소설가 안성효 씨, 평론가 황현산 씨 등 문인 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닥터 지바고」는 시인 오세영 씨가 『시인의 순결을 지키는 고독』으로 평하는 등 강경훈, 김소엽, 이수화, 차옥혜, 이승하, 이윤학 씨 등 9명의 호평을 얻었다." 「문인들이 꼽은 문학적인 영화 1위 「닥터 지바고」, 2위 「향수」 등 "소설보다 더 감동적"」, 《동아일보》, 1997년 8월 15일자, 15면.

79) 「독자와 함께 정리하는 20세기 20대 뉴스 7. 세기의 걸작 '모던타임스' '에스터데이' 첫손」, 《한겨레》, 1999년 11월 19일자, 17면. 참고로 김영하 연재소설 「퀴즈쇼」(마지막 회)에 닥터 지바고를 언급한 바 있다. 「퀴즈쇼」(171), 《조선일보》, 2007년 10월 12일자, 사람 A32면.

80) 2000년대 이후는 러시아문학자이자 서평가인 '로자'가 파스테르나크에 대한 대중적 안대를 하고 있다.

문을 연 그날 숨 한번 크게 쉬지 못하고 나는 스크린에 붙잡혀 있었다. 그해 여름은 아름다운 꽃밭 위로 흐르던 라라의 테마와 떠나가는 연인을 바라보는 지바고의 간절한 눈빛으로 가득 채워졌다.”⁸¹⁾ 이처럼 다수에게 이 영화는 멜로드라마, 대하 멜로영화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명확히 말하면 지바고와 라라의 사랑은 불륜이었다. 그래서 1980년대 말 이후 한국 사회에서 여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자 ‘지바고의 사랑’을 부정하는 독자도 늘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해석을 둘러싼 충돌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김정란의 은희경에 대한 비판이다. 권성우는 “『닥터 지바고』의 유리(=보리스)의 예를 들어 ‘인간의 나약함과 모순을 인정해’주지는 은희경의 역설적 화법을 곧이곧대로 해석하여, 은희경의 반페미니즘적 태도에 대해 일갈하는 김정란의 주장(『조선일보를 위한 문학』)은 넌센스”⁸²⁾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보다 더 복잡한 수용사는 소설가 은희경과 공지영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과거 번역자들이 이 작품에서 인생의 경륜을 느꼈다고 언급한 것처럼⁸³⁾, 1995년에 등단한 은희경은 그즈음 “영화 〈닥터 지바고〉를 세 번 봤는데 10대일 때는 추운 나라의 대자연과 멋진 배우들에게 매혹되었고, 20대일 때는 러시아혁명과 전쟁이 주로 눈에 들어왔으며, 작가로 일정한 성공을 거둔 이후인 30대에는 보편적인 시각과 광고문구처럼 ‘사랑과 인생’이 보이더라는 글을 한 신문에 발표했다.”⁸⁴⁾ 이와 흡사하게 공지영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 어린 시절에 영화를 보고 온 부모님 덕분에 ‘에로틱한 줄 알고 있었는데 16세 때 처음 영화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던 슬픈 사랑영화라고 생각했다. 대학 입학 후 러시아혁명사를 배우고 투쟁을 하던 25세, 공지영은 두 번째로 영화를 보면서 러시아혁명을 이해했다. 동시에 “지바고 같은 우유부단한 회색분자는 절대로 사랑을 하지 않을 거야. 저 남자가 역사를 알아, 혁명을 알아? 그리고 그녀는 회색분자가 되지 않기 위해 공장으로 떠났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이혼한 후였다. 이때 공지영은 지바고나 라라가 아니라 라라 어머니의

81) 「일사일언」 내 인생의 문 되어준 ‘라라의 테마’, 《조선일보》, 2008년 2월 29일자, 문화 A23면.

82) 권성우, 『비평과 권력』(소명출판, 2001), 21쪽.

83) 보리스 빠스테르나크 著, 張世紀 譯, 『醫師 지바고』(文豪社, 1959), 316쪽; B. 파스테르나크 著, 河東林 譯, 『醫師 지바고』(新文出版, 1978), 594쪽.

84) 한기호, 『베스트셀러 30년』(교보문고, 2011), 252쪽.

정부이자 나라의 정조를 뺏은 코마롭스키에 주목한다. 영악하게 살고 싶었던 당시의 마음이 생존술의 대가인 코마롭스키에게 향했던 것이다. 이후 그녀가 마지막으로 영화를 볼 때는 소파에서 잠들고 말았다. 이 소회의 글을 공지영은 “나는 과연 올바른 인생길을 가고 있는 걸까. ‘닥터 지바고’와 내 인생을 생각해보니 슬픈 귀가 닫히고 문득 심란해진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⁸⁵⁾ 공지영은 혁명, 반공, 사랑의 범주를 넘어 인생론으로 화두를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 영화 작품은 소설의 인기와 상호작용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영화계에 존속하면서 독자의 연령과 경험, 처지와 맞물려 다양한 생각거리를 준(추억의) 명화였다.

V. 맺음말

이 글은 외국문학이 한국에 미친 문학·문화적 영향과 그에 따른 문화적 조명, 지성사 연구이며 한국에서 오랫동안 읽혀온 ‘룽 셸러’의 존재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획이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1958년 노벨문학상을 거부하면서 서방에게는 ‘자유의 옹호자’, 핍박받는 예술인으로 표상되었다. 또한 그가 『닥터 지바고』를 쓸 때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으며 뚝뚝한 수탉지를 국가원수처럼 느낀 것처럼⁸⁶⁾, 그의 소설도 반공문학으로 간주되었다. 이로 인해 반공-분단 국가 한국에서 노벨문학상 출판 경쟁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지나친 출판 경쟁은 자금난과 저작권 문제를 야기했다. 1965년 미국에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1968년 한국에서 수입허가가 나면서 영화 붐이 일어났다. 소설이 혁명을 상기시킨다면 영화는 ‘사랑’⁸⁷⁾의 감정을 자극했다. 반공문학이 대하 멜로영화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반공주의와 문화상품화 및 대중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재현의 필진성이나 리얼리티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파스테르나크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극복

85) 공지영, 「지금은, 슬픈 귀를 닫을 때-닥터 지바고」, 강현 외, 『내 인생의 영화』(씨네21 북스, 2005), 13-17쪽.

86) 울가 이빈스카야 저, 신정옥 역, 앞의 책(1978), 243쪽.

87) 번역자들은 대개 이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인간(지바고-라라)에 대한 사랑, 예술창조에 대한 사랑, 희생(크리스트)으로서의 사랑”이 그것이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저, 이동현 역, 『닥터 지바고』(동서문화사, 2016), 667쪽.

하기 위해 택한 서사 방식은 체제의 억압을 은유적으로 환기하는 면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독자가 러시아혁명의 실체와 역사의 변동 과정을 포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 때문에 소련 사회에 대한 고발·비판의 상징성과 증언문학의 명성이 솔제니친에게 옮겨가고 말았다.

그러나 소련의 양심을 대표하는 작가로서의 파스테르나크의 지위는 변함이 없었다. 소련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복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닥터 지바고』 출간과 관련된 진실이 차츰 드러났다. 특히 보리스의 연인 올가를 통해 솔제니친의 문학적 출현의 배경에는 파스테르나크의 수상 거부가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1920년대 이후 소련 내 보리스의 시인으로서의 위상과, 『닥터 지바고』의 소설 기법의 맥락, 스탈린 및 당국과 보리스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복권 과정이 소상히 알려졌다. 이로 인해 1958년 이후 한국 독자 역시 파스테르나크의 소련 내 평가와 그 변천을 동시대에 파악할 수 있었다.⁸⁸⁾ 이러한 유명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대성공하면서 한국 독자는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지바고'란 이름을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영화음악 〈라라의 테마〉를 흔하게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문학연구자 및 서평가 로자 이현우가 지적했듯 이 작품은 영화로 인해 '지나치게 멜로드라마적'으로 수용되어갔다. 러시아의 역사와 혁명에 더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그의 지적을⁸⁹⁾ 새겨들은 독자라면 소설의 주인공 유리 지바고가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다. 지바고는 고아로 등장하지만 부유한 친지의 보살핌 아래에서 성장한다. 즉, 지바고는 혁명 이전 상류계급(귀족) 문화의 전형적인 산물이다. 상류계급 출신의 지바고가 포착한 러시아혁명은 구 상류계급과 인텔리의 몰락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대의 굵직한 사건이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서사화되어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고민과 욕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러시아혁명사가 궁금해서 이 책을 잡은 독자는 파스테르나크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혁명을 바라본 작가의 소설을

88) 미르스키에 따르면 1920년대 소련에서 파스테르나크의 시는 난해하여 문인 외에 일반 독자는 잘 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의 시는 두 가지 면에서 독자에게 감동을 준다. (1) 강렬한 시적욕망 (2) 그것을 표현하는데 있어 신중한 신선함이 배합된, 놀랍도록 분석적인 비전의 날카로움이다. 그의 풍경과 정물들은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이다. 이 외 미르스키는 파스테르나크를 미래주의 시인의 계열로 평가했다. D. P.미르스키 저, 이항재 역, 『러시아 문학사』(1927)(씨네스트, 2008), 632-633쪽.

89) 로자, 「내적 망명자의 삶과 죽음」(2000. 7. 15.), blog.aladin.co.kr/mramor/267842

찾아 읽어야만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또한 영화의 재현과 관련해 『닥터 지바고』를 영화화한 이탈리아 명감독 데이비드 린은 대표적인 ‘오리엔탈리즘 작가’다.⁹⁰⁾ 그 영화에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지바고가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비에트 당국자에게 과거에는 없던 ‘기아’가 생겼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⁹¹⁾ 혁명으로 인해 기아가 생겼다는 의미인데, 이는 농촌의 불황과 노동자의 빈곤 때문에 발생한 혁명의 역사를 삭제해버리는 효과가 있다. 또한 영화 속 전쟁은 독일만 등장한다. 사회적 혼란은 독일과의 전쟁 그리고 내전의 서사다. 하지만 당대 혁명은 독일, 폴란드, 내전, 소련을 봉쇄한 연합국, 소련 외곽의 민족독립운동 등이 맞물린 복잡성이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회적 모순과 혼란은 소비에트 혁명가의 탓이 되고 만다. 『닥터 지바고』가 체제의 경직성과 폭력성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올가가 회고록에서 자신의 삶을 “재난으로 가득 찬 생애”로 표현하듯, 반공·반소의 입장에 있는 독자에게 『닥터 지바고』는 죽음과 기아, 혼돈이 난무하는 ‘재난문학’이며 소련은 ‘재난사회’다. 하지만 ‘자유’에 못지않게 중요한 ‘평등’의 가치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작품이다. 『닥터 지바고』는 가난한 농민, 노동자 출신의 주인공이 꾸려가는 소설이 아니다. 이는 1905년, 1917년 이전에 존재했던 여러 번의 개혁과 반동의 역사를 탈각하는 것이기도 했다.⁹²⁾ 이 때문에 한국 독자는 물론 세계 각국의 많은 독자들은 『닥터 지바고』를 통해 혁명의 기원과 원인, 국가 및 사회 개조를 위한 당대인의 고민·노력과 땀이 주는 교훈 등을 얻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다.

90) 에드워드 W. 사이드 저,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2015), 674쪽.

91) 데이비드 린 감독, 오마 샤리프·줄리 크리스티 주연, 〈닥터 지바고(Dr. Zhivago)〉(1965), 워너브라더스, 2007(3시간 17분).

92) 1855-1881년의 시기에 농노해방과 진보적 개혁이 있었고 이후 1890년대 초까지 반동의 역사가 있었다. 1891-1892년의 무서운 기근과 연이은 빈곤의 누적된 불만이 1905년 1월 22일 ‘피의 일요일’을 기해혁명으로 표출되었다. 이때 성립된 입헌군주국도 러시아 대중의 고충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결국 1917년 2월 혁명으로 로마노프 전제체제가 붕괴되었고 10월 혁명으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다. 라차노프스키 저, 김현택 역, 『러시아의 역사 II 1801-1976』(까치, 1982), 120-195쪽.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思想界』, 『読売新聞』, 『조선일보』, 『한겨레』, 『現代文學』.
- 데이비드 린 감독, 오마 샤리프·줄리 크리스티 주연, 〈닥터 지바고(Dr. Zhivago)〉(1965). 위너브라더스, 2007. 12. (3시간 17분)
- 막심 고리키 저, 최영민 역, 『어머니』. 석탑, 1985.
- パスデルナーク 著, 原子林二郎 譯, 『ドクトル・ジバゴ』 第1・2部. 東京: 時事通信社, 1959. 4.
- 보리스 빠스페르나크 저, 張世紀 역, 『醫師 지바고』. 文豪社, 1959.
- 빠스페르나크 저, 申一澈 역, 『人生旅券: 빠스페르나크의 自敘傳, 一名, 安全通行證』 (1931). 博英社, 1959.
- 파스테르나크·솔제니친 저, 이동현·오재국 공역, 『세계의 文學大全集, 醫師 지바코·이반데니소비치의 하루』. 同和出版公社, 1971.
- B. 파스테르나크 저, 河東林 역, 『醫師 지바고』. 新文出版社, 1978.
-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저, 안정효 역, 『자서전적인 에세이: 어느 시인의 죽음』(1977). 까치, 1981.
- 보리스 빠스페르나크 저, 박형규 역, 『나의 누이 나의 삶』. 열린책들, 1989.
-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저, 오재국 역, 『닥터 지바고』. 범우사, 1999.
- 보리스 파스페르나크 저, 박형규 역, 『열린책들 세계문학 40. 닥터 지바고』. 열린책들, 2011.
-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저, 임혜영 역, 『안전 통행증·사람들과 상황』. 을유문화사, 2015.
-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저, 이동현 역, 『닥터 지바고』. 동서문화사, 2016.
- 솔로호프, 『동서세계문학전집, 고요한 돈강』. 동서문화사, 1987.
-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저, 김학수 역, 『수용소군도』(1974). 대운당, 1981.
- 올가 이빈스카야 저, 신정옥 역, 『라라의 회상; 파스테르나크의 戀人(上·下)』. 科學과 人間社, 1978.
- 「醫師 지바고」, 《경향신문》, 1958년 10월 31일자-1958년 12월 10일자(총 41회)
- ジョン・ガンサー 著, 湯淺義正 譯, 『ソヴェトの内幕』. 東京: みすず書房, 1959.
- 존 건서(Gunther, John) 저, 백성환 역, 『소련의 내막(上)』. 성문각, 1961.
- 흐루시초프 저, 鄭洪鎮 역, 『세계의 大回顧錄全集, 흐루시초프』. 翰林出版社, 1981.

2. 단행본

- 강헌, 『강헌의 한국대중문화사 2, 자유만세』. 이봄, 2016.
- 권성우, 『비평과 권력』. 소명출판, 2001.
- D. P. 미르스끼 저, 이항재 역, 『러시아 문학사』(1927). 씨네스트, 2008.
- 라자노프스키 저, 김현택 역, 『러시아의 역사II 1801-1976』. 까치, 1982.
- 마치엔 외 저, 최옥영·한지영 역, 『노벨문학상 100년을 읽는다』. 지성사, 2006.
- 베르트 슈퇴버 저, 최승환 역,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1945-1991』. 역사비평사, 2008.
- 에드워드 W. 사이드 저,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15.
- 한기호, 『베스트셀러 30년』. 교보문고, 2011.

3. 논문

- 공지영, 「지금은, 슬픈 귀를 닫을 때: 닥터 지바고」. 강헌 외, 『내 인생의 영화』, 씨네21박스, 2005, 13-17쪽.
- 김수영, 「도덕적 갈망자 파스테르나크」(1964). 『김수영 전집 2』, 민음사, 2007, 299-313쪽.
- 로자, 「내적 망명자의 삶과 죽음」. 2000. 7. 15, <http://blog.aladin.co.kr/mramor/267842>
- _____, 「유토피아의 종말 이후의 유토피아」. 2008. 8. 20, <http://blog.aladin.co.kr/mramor/2252568>
- 문병란, 「혁명·인간·사랑에 대한 고뇌: 「닥터지바고」, 파스테르나크 著〈書評〉」. 『現代文學』, 1988. 11, 278-279쪽.
- 박윤희, 「문예영화와 검열」. 『영상예술연구』 17집, 영상예술학회, 2010. 11, 175-195쪽.
- _____, 「박정희 정권기 영화 검열과 감성 재현의 역학」. 『역사비평』 99집, 역사비평사, 2012. 5, 42-90쪽.
- 박인숙, 「“전환”과 “연속”: 닉슨(Richard Nixon)행정부 “테팡트”정책의 성격」. 『미국학논집』 38권 3호, 한국아메리카학회, 2006, 117-154쪽.
- 솔제니친,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백낙청 편, 『문학과 행동』, 태극출판사, 1974.
- 오탁번, 「라라에 관하여」. 『아침의 豫言』, 朝光출판사, 1973.
- 이봉범, 「1950년대 문화 재편과 검열」. 『한국문학연구』 34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6.
- _____, 「1950년대 번역 장의 형성과 문학 번역」. 『대동문화연구』 79권 0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 이철, 「명저의 초점: 파스테르나크의 의사 지바고」. 『북한』 제160호, 북한연구소, 1985. 4, 207-213쪽.

이행선, 「게오르규의 수용과 한국지성사의 '25시': 전후문학, 휴머니즘, 실존주의, 문명비판, 반공주의, 어용작가」. 『한국학연구』 41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5, 9-41쪽.

국 문 초 록

이 글은 소련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소설, 산문, 영화, 보리스의 연인의 자전적 에세이 등을 통해 외국문학자의 문학·문화적 영향, 그 통시적 수용사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닥터 지바고』(1957)는 1958년 한국에 번역 소개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968년 수입된 영화는 1990년대까지 네 번 이상 상영되고 TV에 여러 번 방영된 명작영화였다. 그 결과 1997년에는 ‘시청자가 뽑은 다시 보고 싶은 영화 50’에서 9위였고 같은 해 ‘문인이 뽑은 문학적인 영화’ 1위였으며, 1999년에는 전문가가 뽑은 ‘20세기 걸작’에서 6위, 네티즌이 뽑은 걸작 4위에 선정되었다. 이처럼 특정 작품이 일반 독자와 문인을 포함한 영화예술인 등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오랫동안 인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와 한국에 미친 문학·문화적 영향이 궁금하다. 특히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목을 요한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번역으로 알려진 1958년부터 2000년대 무렵까지 한국에서의 수용사를 통시적으로 구명(究明)하고자 했다.

투고일 2017. 6. 1.

심사일 2017. 7. 4.

게재 확정일 2017. 8. 24.

주제어(keyword) 베스트셀러(best-seller), 번역문학(translation literature), 솔로호프(Sholokhov), 재난문학(Disaster Literature), 반공주의(anti-communism), 노벨문학상(The Nobel Prize in Literature)